## 지역별 창업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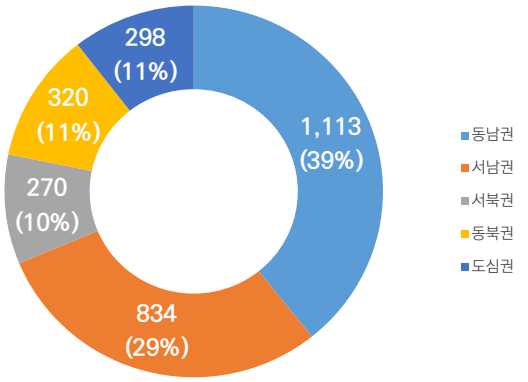
### 1) 5대 권역별

#### ㅣ 5대 권역별 창업현황

- 2019년 5월 전국에서차지하는서울의 법인창업 비중은 30.0%로 17개시도 중 1위, 단, 작년 동월의 비중인 31.6%보다는 1.6%p 감소
- 권역별 법인창업은 동남권이 1,113개로 가장 많고, 그 다음은 서남권이 834개, 동북권 320개, 도심권 298개, 서북권270개 순으로 활성화

[그림 2] 2019년 5월 권역별 창업법인 수(비중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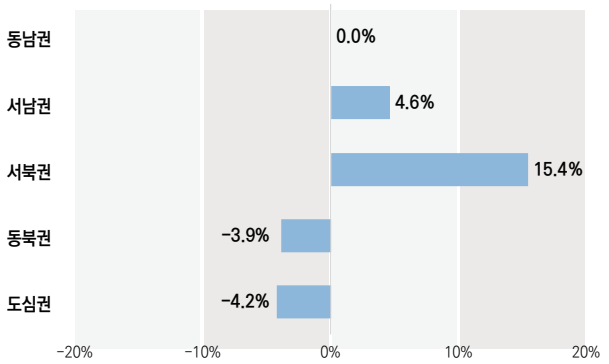
단위: 창업 법인 수(비중 %)




#### ㅣ 권역별 증감률(전년 동월 대비)

- 권역별 법인 창업 증감률은 서북권(15.4%)과 서남권4.6%)에서 전년 동월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도심권(-4.2%)과 동북권(-3.9%)은 소폭 감소, 동남권(0.0%)은 보합
- 법인창업 건수가 많은 서울시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동남권의 창업 증가율은 0.0%로 보합세
  - 동남권의 도심제조업, 금융업, 녹색·디자인 및 패션·바이오메디컬, 콘텐츠업 등의 법인 창업 증가율은 각각의 서울 전체 업종별 증감률 보다 높았으나 사업체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과 그외기타 업종의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은 보합 상태
- 서북권(15.4%)과 서남권(4.6%)은 증가한 반면 도심권(-4.2%)과 동북권(-3.9%)은 감소
  - 서남권은 사업체 비중이 높은 금융업과 그외기타 산업에서의 법인 창업 증가로 콘텐츠업, 녹색·디자인 및 패션·바이오메디컬, 도심제조업에서 큰 폭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권역 성장률은 증가
  - 법인창업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도심권과 동북권에서는 각각 금융업과 IT융합업, 비즈니스서비스업과 관광·MICE, 숙박 및 음식점업의 법인창업 증감률만 증가

[표 2] 2019년 5월 권역별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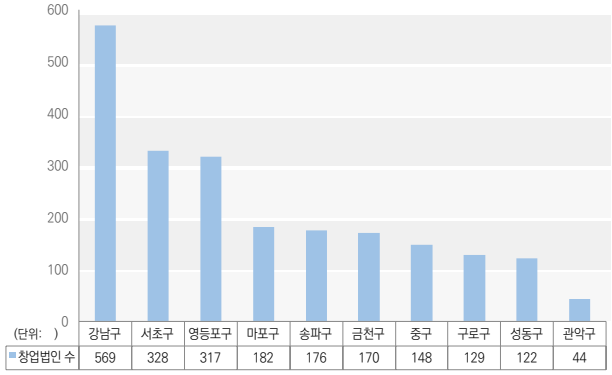



### 2) 자치구

#### ㅣ 자치구별 창업현황

- 자치구별 법인창업은 관광·MICE업을 제외하고 강남구에서 가장 활발하게 창업
- 자치구별 법인창업은 강남구가 569개(20.1%)로 가장 많고, 그 뒤를이어 서초구 328개(11.6%), 영등포구 317개(11.2%), 마포구 182개(6.4%), 송파구 176개(6.2%), 금천구 170개(6.0%), 중구 148개(5.2%), 구로구 129개(4.6%), 성동구 122개(4.3%), 관악구 44개(1.6%) 순

[표 3] 2019년 5월 창업법인 수 상위 10위 자치구




| (단위: ) | 강남구 | 서초구 | 영등포구 | 마포구 | 송파구 | 금천구 | 중구 | 구로구 | 성동구 | 관악구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창업법인 수 | 569 | 328 | 317 | 182 | 176 | 170 | 148 | 129 | 122 | 44 |

## Ⅰ 자치구별 증감률

• 창업법인 수 상위 10개 자치구의 법인창업 증감률은 성동구(38.6%), 금천구(26.9%), 서초구(21.5%), 마포구(16.7%) 등의 지역은 전년 동월 대비 창업이 증가한 반면, 송파구(-10.7%), 강남구(-4.4%), 영등포구(-2.2%) 등은 소폭 감소

[표 4] 상위 10위 자치구별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

